

배우 고현정 “난 언제나 2등이다”

넷플릭스 ‘마스크걸’ 주인공 김모미 역
이한별·나나와 한 캐릭터 3등분 해 연기
“장르물 기다려...원하던 캐릭터 들어와”
“머리 짧게 자를 땐 살짝 겁이 나기도”
“역할은 상관 없어...작은 역할도 괜찮다”



“글쎄요...저는 제가 완전히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이 말을 한 배우가 고현정(52)이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 고개를 가우뚱 하자 그가 덧붙였다. “모래시계 때 저는 태수와 우석 사이에 있는 걸다리였잖아요.(웃음) ‘선덕여왕’은 선덕여왕이 주인공이죠. 전 미실이었고요. 원래 25회만 출연하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분량이 늘어난 거예요. ‘대물’에서 대물은 사실 권상우씨가 연기한 ‘하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고현정은 반박해서 “운이 좋은 상황이었다”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때도 전 2등이었어요.”
그렇다면 고현정이 2등과 운을 언급하며 부러 자신을 낮추는 것과 그가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8월18일 공개)을 선택한 것도 관련이 있어 보였다. 이 작품에 고현정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가 타이틀 롤인 마스크걸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그

는 ‘마스크걸’에서 마스크걸이다. 그런데 고현정만 마스크걸인 건 아니다. 배우 이한별과 나나가 같은 캐릭터를 나눠 연기했다. 말하자면 3인 1역, 7부작인 이 드라마에서 고현정이 등장하는 건 6회 중반부터. 그러니까 고현정의 분량은 3분의1일일 채 되지 않는다. 고현정은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니기도 하다. 그의 말처럼 이번에도 “완전히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울 게 왔구나, 싶었죠. 그동안 저한테 들어오는 작품들이 대체로 비슷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 작품에서 이미지가 고정돼 있는 것인지 몰라도 항상 비슷한 역할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장르물이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작품도 좋더라고요. 무조건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전 항상 저 혼자 이고 지고 가는 역할만 했잖아요.(웃음) 그게 아니라서 좋았어요. 여러 배우들과 협력해야 하고, 심지어 하나의 캐릭터를 세 사람이 같이 연기해야 하나...이런 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

니다.”
세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간 마스크걸 김모미의 일대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고현정은 김모미가 감옥에 간 뒤 10년이 흐른 시점의 그를 연기했다. 숏컷 한 머리, 필요할 때 외엔 꼭 다물고 있는 입, 비쩍 마른 몸, 관리 안 된 피부, 초점이 사라진 듯한 눈. 그간 숏한 영화·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온 고현정이지만,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다. “처음엔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진 않았어요. 좀 겁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끈기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잘랐어요. 그제서야 감독님이 아주 만족 하더라고요.(웃음) 그동안 제가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을 저한테서 꼭 찾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고현정은 김모미를 감옥에서 10년 보낸 사람이라는 점에 중점을 뒀. 그러나 있다고 했다. 그는 “김모미의 현 상태에 집중했다”며 “김모미의 오늘, 현재만을 생각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연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한별의 김모미가 과상하고 서글프다면, 나나의 김모미의 울적하고 파워풀하다. 그리고 고현정의 김모미는 외로우면서 목격하다. 정중동(靜中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캐릭터다. 고현정은 자신의 김모미를 “깊은 강바닥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평소에는 아주 낮은 텐션을 유지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깊은 강바닥 같은 인물이면서 동시에 한 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죠. 일단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쓰는 겁니다.”
감옥에서 잠잠해 있던 김모미를 움직이는 건 딸이다. 갓난아기 때 엄마에게 맡겨졌고, 이제 중학생이 된 딸 김미모. 김모미를 원수로 여기는 김경자는 김미모를 사실상 인질로 잡고 김모미를 겁박한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 그래서 김모미는 탈옥을 감행한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김모미의 행동은 모성애(母性愛)로 해석될 수 있지만, ‘마스크걸’엔 흔한 영화·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구구절절한 감상 따윈 없다. 김모미는 역시나 말없이 최선을 다해 딸을 지킨다. 역동적이지만 역시나 건조하다. 고현정은 “모성이라는 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작품들이 보여준 것과 비슷한 게 나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뻘한 모성으로 표현하면 클리셰 같고, 구차할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모성이 항상 뜨겁고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너무 드라마틱해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전 모성을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김모미에게 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상의해서 모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최대한 생략했어요. 그렇게 표현된 모성이 ‘마스크걸’의 모성이라면 모성이예요.”
고현정은 ‘마스크걸’의 결말을 해방으로 표현했다. “결국 인간 개인의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김모미가 자신을 속박했던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스크걸’은 고현정을 고정된 이미지에서 해방해주는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 많이 쓰이고 싶어요. 어떤 역할이든 상관 없어. 작은 역할도 좋아요.”

인피니트 “인스피릿, 함께 가는 평행선”...日 공연 성료



7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그룹 ‘인피니트’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나

(INFINITE)가 일본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 28일 소속사 인피니트 컴퍼니에 따르면, 인피니트는 전날 일본 요코하마의 파시피코 요코하마 내셔널 컨벤션 홀(PACIFICO YOKOHAMA NATIONAL CONVENTION HALL)에서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
‘컴백 어게인’은 그간 솔로 아티스트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여섯 멤버가 7년 만에 완전체로 함께한 단독 콘서트다. 지난 19~20일 양일 간 서울에서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이날 요코하마 공연에서 인피니트는 데뷔곡 ‘다시 돌아와’부터 ‘BTD (Before The Dawn)’, ‘추격자’까지 연달아 선보이며 공연의 막을 열었다. 첫 무대를 마친 인피니트는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현지 팬들을 향해 일본어로 첫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백(Back)’, ‘파라다이스(Paradise)’, ‘태풍(The Eye)’, ‘텔미(Tell Me)’, ‘아이 헤이트(I Hate)’, ‘러브레터’, ‘마주보며 서 있어’, ‘싱크로 나이즈(Synchronise)’, ‘말겨’, ‘커버 걸(Cover Girl)’, ‘내꺼하자’, ‘맨 인 러브(Man In Love (남자가 사랑할때))’, ‘넛띵스 오버(Nothing’s Over)’, ‘클락(CLOCK)’ 등 지난 13년의 역사를 함께한 곡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 지난달 31일 발매한 일곱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뉴 이모션스(New Emotions)’, ‘시차’를 비롯해 오랜만에 선보이는 ‘딜레마(Dilemma)’, ‘토키(Toki)’ 등 일본 곡들의 무대도 이어졌다. 뉴시스

방시혁 “세계적 현상 ‘K팝 방법론’ 약동하는 글로벌그룹에 적용”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K-팝의 방법론을 적용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다양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초대해 약동하는 집단을 창조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발굴을 기점으로 K팝의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한국의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은 2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LA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IGA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The Debut: Dream Academy)’ 출발 기자 간담회에서 “오래전부터 K팝 방법론을 기반 삼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K팝 스타일의 ‘글로벌 그룹’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세계 3대 메이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 산하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합작사 ‘하이브 x 게펜 레코드’를 만든 이유다.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는 이 합작 법인(JV)이 주최하는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루시안 그레이지 유니버설뮤직그룹 회장이 방 의장에게 준 제1회 게펜레코드 회장을 소개했다.
K팝 대표 기업과 미국 일류 레코드 레이블이 K-팝 트레이닝 및 개발 시스템을 모델로, 미국 현지 기반의 글로벌 걸그룹을 선보이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아티스트 발굴, 트레이닝, 음악 프로듀싱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 기획 단계부터 그룹 결성과 트레이닝 등을 거쳐 그룹 소개까지 함께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시장의 A&R 과정과 K-팝 트레이닝 시스템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 의장은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두 시스템이 핵심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놀랍도록 재능 있는 인재를 발견하고 이들이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 조력하며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방 의장은 “저는 우리가 같이 일귀운 시간들과 우리가 발견한 재능있는 인재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마찬가지로, K-팝 세상 안에서 하이브가 이러한 기회를 창출해 낸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번 오디션엔 전 세계에서 12만 명이 지원했다.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다양한 문화

적 배경을 가진 20명의 참가자들이 본격적으로 경합한다. 연습생들은 한국, 미국,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호주, 태국, 필리핀 등 12개 지역 출신이다. 연령대 또한 14세부터 21세까지로 다양하다.
방 의장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이들 모두는 지금 친구가 됐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꿈, 공통된 목적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라면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 이 그룹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 과정을 함께 보고싶어 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만큼, 이들의 활동 역시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각의 인재들과 연결된 국가와 문화권을 보여준다. 또한 K-팝의 방법론에 따라서 성장해 왔기에 K-팝에 대한 존중 역시 잊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의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방 의장은 강조했다.
방 의장과 의기투합한 제1회 게펜 레코드 회장 역시 “아티스트가 발전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하이브와 우리의 공동적인 성공 요인”이라며 “하이브와 함께 최고의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것이 흥분된다”고 동의했다.
오디션은 오는 9월2일부터 11월18일까지 12주간 진행된다. 3개의 미션 라운드와 생방송인 ‘라이브 피날레’로 구성된다. 연습생들은 매 라운드마다 댄스, 보컬, 팀워크, 콘셉트 등과 관련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글로벌 시청자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습생들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 최종 데뷔주는 11월 18일 생중계되는 ‘라이브 피날레’에서 발표된다.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등에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의 공식 채널을 비롯해 위버스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소셜 미디어와 위버스를 통해 오디션 시작에서부터 연습생들과 팬들이 소통할 수 있다. 나아가 시청자들 누구나 마치 올림픽을 관전하듯 자신과 지역적·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연습생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응원하는 재미도 얻게된다고 하이브는 전했다.
세 차례의 미션과 평가, 탈락 과정을 담은 콘텐츠와 최종 데뷔조를 뽑는 ‘라이브 피날레’ 또한 유튜브, 일본 아베마(ABEMA), 위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00여개의 숏폼 콘텐츠가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2024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이번 오디션 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방영이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연출은 영화 제작자이자 4차례 에미상 후보에 오른 ‘비커밍(Becoming)’의 감독 나디아 홀그렌이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를 공식 알리는 이날 자리에는 해외 취재진들이 대거 몰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180여명의 취재진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세정, 더블 타이틀곡 ‘항해’ 뮤비 티저

그룹 ‘아이오아이·구구단’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이 한 편의 동화 같은 티저를 공개했다. 김세정은 29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첫번째 정규 앨범 ‘문(門)’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항해’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올렸다.
영상은 어린 소녀가 벽장의 문을 열고 나오는 동화같은 분위기로 시작한다. 빛나는 벽장에서 어두운 곳으로 걸어 나온 소녀가 조명을 밝힌다. 이후 주변이 따뜻한 빛으로 쌓이고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피드 사운드가 흘러나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깊은 단잠에 빠져있던 김세정은 어린 소녀의 인기척에 눈을 떠다.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놀라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난다. 이후 ‘VOYAGE, 2023.08.30 0AM’이라는 텍스트가 나오며 ‘항해’의 뮤직비디오 본편 공개 시간을 알렸다. 짧은 영상이지만 마치 동화 속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김세정은 내달 4일 오후6시 첫 번째 정규 앨범 ‘문(門)’을 공개한다. 2021년 3월29일 발매



한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I’m)’ 이후 약 2년5개월 만의 새앨범이다. 김세정은 전곡 작사·대부분의 수록곡 작곡에 참여하며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어냈다.
음반 발매 직후 같은 달 23~24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콘서트 ‘더 문(The 문)’은 2회차 전석 모두 빠른 속도로 매진을 기록했다. 10월15일 열리는 대만 콘서트 또한 지난 19, 26일에 걸쳐 전석 뿐 아니라 추가 오픈한 좌석까지 매진됐다.